

교회의 전례 거행¹⁾

신성근 신부

1. 성사 전례의 거행자

전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행위’이다. 이 세상에서 표징들이 암시하는 전례를 거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천상 전례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가 거행하는 전례는 충만한 친교와 축제이다.

그러므로 성사 전례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그 머리와 결합하여 있는 공동체 전체가 거행하는 것이다.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영향을 끼친다. 교회의 각 지체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으로 관여한다.”²⁾ 이러한 까닭에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교우들의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동 거행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동 거행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³⁾

전례에 참여하는 회중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신령한 집과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바치는”⁴⁾ 세례받은 이들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보편 사제직’은 유일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며 그분의 모든 지체가 이 사제직에 참여한다.⁵⁾

그러므로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교우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참여는 바로 전례의 본질이며, “선택된 거룩하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1베드 2,9)인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⁶⁾

그러나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로마 12,4). 어떤 지체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도록 하느님께 부름을 받는다. 이러한 봉사자들은 선택되고 성품성사로 축성된다. 이 성사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봉사하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⁷⁾ 성품을 받은 봉사자는 말하자면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성사인 교회는 성찬례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찬례를 주례할 때 주교의 직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주교와 일치한 사제들과 부제들의 직무가 잘 드러난다.

1) 이 글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35~1209항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2) 전례 헌장, 26항.

3) 전례 헌장, 27항.

4) 교회 헌장, 10항.

5) 전례 헌장, 26항, 34항 참조.

6) 전례 헌장, 14항.

7) 사제 생활 교령, 2, 15항 참조.

그리고 교우들의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다른 특별한 직무들이 있는데, 성품성사로 축성되지 않는 이 직무들은 전례 전통과 사목적 필요에 따라 주교가 정한다. “복사, 독서자, 해설자와 성가대원들은 진정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⁸⁾

그러므로 성사를 거행할 때 온 회중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임무에 따라 ‘전례 거행자’가 된다. “전례 거행에서는 누구나 교역자든 교우이든 각자 자기 임무를 수행하며 예식의 성격과 전례 규범에 따라 자기에게 맡린 모든 부분을 또 그것만을 하여야 한다.”⁹⁾

2. 전례 행위의 여러 표현

1) 표징과 상징들

성사의 거행은 표징과 상징으로 짜여 있다.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교육 방법에 따라 창조 사업과 인류 문화에 근거를 두고 있는 표징과 상징의 의미는 구약의 사건들 안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업적에서 충만하게 계시된다.

(1) 인간 세상의 표징

인간의 삶에서 표징과 상징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물질적인 표징과 상징을 통해서 영적인 실재를 표현하고 인식한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나 몸짓, 동작을 통한 표징과 상징이 필요하다. 하느님과 이루는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하느님께서는 가시적 피조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지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물질적인 우주에서 창조주의 흔적을 읽어 낸다.¹⁰⁾ 빛과 어둠, 바람과 불, 물과 대지, 나무와 열매들은 하느님에 대하여 말해주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가까이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피조물들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이 표현되는 수단이며, 동시에 하느님께 경배드리는 인간의 행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표징과 상징도 마찬가지이다. 씻고, 기름 바르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들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교회의 전례는 이러한 요소들을 은총의 표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표징으로 승화시킨다.

8) 전례 헌장, 29항.

9) 전례 헌장, 28항.

10) 지혜 13,1 :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2) 계약의 표징

선택된 백성은 그들의 전례 생활을 특징짓는 특수한 표징과 상징들을 하느님께 받았다. 이것들은 이제 우주 운행의 주거나 사회 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표징이며, 당신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의 상징이다. 구약의 이 전례적 표징들을 들어 보면, 할례, 왕과 사제에 대한 도유와 축성, 안수, 희생 제사, 그리고 특히 파스카 등이 있다. 교회는 이러한 표징들 안에서 신약의 성사들의 예표를 본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표징. 주 예수님께서서는 가르치시는 중에 종종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자 피조물을 표징으로 이용하신다.¹¹⁾ 예수님께서서는 물질적인 표징이나 상징적 행위로 병을 고쳐 주시거나 당신의 설교를 부각시키신다.¹²⁾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사건과 표징들, 특히 이집트 탈출과 파스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다.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모든 표징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3) 성사의 표징

성령 강림 날부터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사적 표징을 통하여 성화 활동을 하신다. 교회의 성사들은 물질세계와 사회생활의 풍부한 모든 표징과 상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화하고 수용한다. 그뿐 아니라, 구약의 예표와 형상들을 완성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상징하고 실제로 현존하게 하며, 하늘의 영광을 예시하고 미리 누리게 한다.

2) 언어와 행위

성사 거행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며, 이 만남은 행위와 언어를 통하여 대화로 표현된다. 상징적인 행위 자체가 이미 언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 이 행위들에 따라 나와야 하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전례 행위는 하느님의 말씀이 표현하는 것을 드러낸다. 곧 무상으로 먼저 베푸시는 하느님의 주도와 하느님 백성의 신앙의 응답을 동시에 의미한다.

말씀 전례는 성사 거행의 필수 부분이다. 교우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책임 성경, 말씀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행렬과 향 그리고 촛불,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인 독서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봉독, 말씀 선포의 연장인 사제의 강론, 회중의 응답인 환호송과 화답송 그리고 연도[連禱]와 신앙 고백 등은 하느님 말씀의

11) 루카 8,10 :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마르 7,33-35 :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표징들이 부각되어야 한다.

표징과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전례적인 말씀과 행위는 그것들이 가리키는 바를 실현한다는 면에서도 분리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신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고된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실현하신다. 성령께서는 사랑하시는 성자께서 성취하신 성부의 업적을 현존하게 하고 나누어 주신다.

3) 노래와 음악

“온 교회의 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¹³⁾ 흔히 악기로 반주 되는 영감을 받은 시편의 가사와 노래는 구약의 전례 거행과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지속 발전시켜 왔다.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에페 5,19).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¹⁴⁾

노래와 음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주요 기준에 따라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¹⁵⁾ 깊은 의미를 지닌 표징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기준들은 기도의 아름다운 표현, 예정된 시간에 이루어지는 회중 전원의 일치된 참여, 전례 거행의 장엄함 등이다. 이처럼 노래와 음악은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라고 하는 전례적 언어와 행위의 궁극 목적에 이바지한다.¹⁶⁾

성가, 음악, 언어, 행위들로 표현되는 표징들의 조화는 전례를 거행하는 하느님 백성 고유의 풍부한 문화로 표현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것이 된다.¹⁷⁾ 그러므로 교회의 규범에 따라, “거룩한 신심 행사들에서 그리고 바로 전례 행위 안에서 신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대중 성가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¹⁸⁾ 그렇지만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¹⁹⁾

4) 성화상

전례 거행의 모든 표징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천주의 성모와 성인들의 성화상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성화상들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구원에 계속 참여하는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히브 12,1)을 보여 주며, 우리는 특히 성사 거행 안에서 이들과 결합된다. 우리 신앙은 이러한

13) 전례 헌장, 112항.

14) 성 아우구스티노.

15) 전례 헌장, 112항.

16) 전례 헌장, 112항 참조.

17) 전례 헌장, 119항 참조.

18) 전례 헌장, 118항.

19) 전례 헌장, 121항.

성화상을 통하여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마침내 “하느님의 모습을 닮도록”²⁰⁾ 변화된 인간과 천사들을 본다.

이와같은 성화상을 보는 일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전례의 찬미가와 합쳐져, 전례 거행의 표징들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하여 전례가 기념하는 신비가 마음속에 기억되고, 나아가 교우들의 새로운 생활로 표현된다.

3. 전례를 거행하는 시기

1) 전례 시기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한 해의 흐름을 통하여 지정된 날들에 하느님이신 자기 신랑의 구원 활동을 거룩한 기억으로 경축하는 것을 자기 임무라고 여긴다. 주간마다 주일이라고 불린 날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일 년에 한 번 주님의 복된 수난과 함께 이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낸다. 한 해를 주기로 하여,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 강림 날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 이렇게 속량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를 교우들에게 열어, 교우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한다.”²¹⁾

교회가 전례 시기를 정함은, 먼저 구세주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업적을 기억하며 영구히 간직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여기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 기도 중에 두드러지는 단어 하나는 바로 “오늘!”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²²⁾ 성령의 초대를 그대로 반향하고 있다.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사람이 이 ‘오늘’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시며, 이는 바로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파스카의 ‘시간’이다.

2) 주님의 날

“교회는, 사도전승에 따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 기원을 둔 파스카 신비를 여덟째 날마다 경축한다. 그날은 당연히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불린다.”²³⁾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은 창조의 첫째 날을 기념하는 ‘주간 첫날’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안식일의 ‘휴식’ 다음에 “주님께서 만드신 날”(시편 118[117],24), “저물지 않는 날”을 시작하시는 ‘여덟째 날’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당신 잔치에 초대하신 모든 신자 공동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에서 만나게 되므로, ‘주님

20) 로마 8,29 :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21) 전례 헌장, 102항.

22) 마태 6,11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23) 전례 헌장, 106항.

의 만찬'이 이날의 중심이다.²⁴⁾

주일은 전례 모임을 위해 가장 좋은 날이다. 이날 교우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례에 참여하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며,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²⁵⁾

3) 전례 주년

빛의 근원인 파스카 성삼일에서 시작하여 부활의 새로운 시기는 전례주년 전체를 찬란히 비춘다. 이 근원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점차 옮겨감으로써 한 해는 전례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전례주년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운 해이다. 구원 경륜은 시간의 틀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원 경륜이 예수님의 파스카와 성령의 파견으로 완성된 뒤에 역사의 종말이 ‘미리 맛봄’으로 실현되었고, 하느님 나라가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단순히 여러 축일들 중의 하나가 아니라, 마치 성체성사가 성사 중의 성사인 것처럼, ‘축일 중의 축일’, ‘대축일 중의 대축일’이다.²⁶⁾

전례주년은 파스카라는 단 하나의 신비가 지닌 다양한 측면이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파스카 신비의 첫 열매를 전해 주는, 강생의 신비가 중심이 되는 축일들(주님 탄생 예고, 주님 성탄, 주님 공현)의 주기(週期)도 그러하다.

4) 전례 주년의 성인 축일

“그리스도 신비의 이 연례 주기를 지내는 동안, 거룩한 교회는 당신 아드님의 구원 활동과 떼어 수 없는 유대로 결합되어 있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으로 공경한다. 그분 안에서 교회는 구원의 뛰어난 열매를 경탄하고 찬양하며, 이를 테면 그 지순한 표상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열망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본다.”²⁷⁾

교회가 전례주년 안에서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을 기념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은 성인들 안에서 파스카 신비를 선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성인들의 모범을 교우들에게 보여 주고, 그들의 공로로 하느님의 은혜를 간청하여 받는다.”

24) 요한 21,12 :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5) 전례 헌장, 106항.

26)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모든 교회들은 춘분 후 만월(니산월 14일) 뒤에 오는 주일에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을 지내기로 합의했다. 니산월 14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부활절 날짜는 항상 같지는 않다. 그래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는 다시 주님의 부활절을 같은 날에 지내기 위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1170항).

27) 전례 헌장, 103항.

5) 시간 전례(성무일도)

우리가 성찬례에서 특히 주일 집회에서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비인 강생과 파스카의 신비는, 시간 전례 곧 성무일도의 거행을 통하여 매일의 시간에 스며들어 그 시간을 변화시킨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1테살 5.17)라고 하는 사도의 권고에 따라 충실하게 거행하는 이 성무일도(聖務日禱)는 낮과 밤의 모든 흐름이 하느님 찬미를 통하여 성화되도록 이루어져 있다.²⁸⁾ 시간 전례는 교회의 공적 기도로써 교우들(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왕다운 사제직을 수행한다. 교회가 공인한 형식으로 거행하는 시간 전례는 참으로 자기 신랑에게 이야기하는 신부의 목소리이며, 또한 당신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다.²⁹⁾

시간 전례는 하느님 백성 전체의 기도이다. 하느님 백성은 교회 안에서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위치와 생활의 처지에 따라 여기에 참여한다. 사제들은 사목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와 말씀의 봉사에 충실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으므로 시간 전례 거행을 공식적으로 약속한다. 그리고 남녀 수도자들은 자기 봉헌 생활의 은사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시간 전례를 바친다. 아울러 모든 교우도 가능한 한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주일과 대축일에 주요 시간경 특히 저녁 기도를 성당에서 합동으로 바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도 사제들과 함께, 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각기 혼자서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권장한다.”³⁰⁾

시간 전례의 거행은 목소리와 기도하는 마음의 조화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전례와 성경 특히 시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여러 시간경의 ‘찬미가’는 시편 기도를 교회의 절기에 맞추어 하루 중의 시간이나 전례 시기나 기념하는 축일의 상징적 의미를 표현한다. 그뿐 아니라, 시간경 마다 읽는 하느님 말씀과 독서 기도에서 읽는 교부들과 영성가들의 글은 기념하는 신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일깨워 준다. 그리고 시편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침묵 기도를 준비시켜 준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기도되게 하는 거룩한 독서는 이렇게 해서 전례 거행 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성찬례 거행의 연장인 시간 전례는 하느님 백성의 여러 가지 신심 행위들, 특히 성체 조배와 공경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러한 보완적인 신심 행위를 장려한다.

4. 전례 거행 장소인 성당

“영과 진리 안에서”(요한 4.24) 드리는 신약의 예배는 어느 한 특정 장소에만 매이지 않는다. 온 땅은 거룩하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맡겨졌다. 교우들이 한 장소에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적 집”으로 세워지도록 모인 “살아 있는 돌”(1베드 2.5)이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생수가 솟아 나오는 영적인 성전이다.

28) 전례 헌장, 84항 참조.

29) 전례 헌장, 84항 참조.

30) 전례 헌장, 100항.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2코린 6,16)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건물을 짓는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인 성당은 단순히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아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교회를 의미하고 드러내 보인다.

기도의 집인 성당은 성찬례가 거행되고, 성체가 보존되어 있으며, 신자들이 모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단에서 봉헌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하느님 아들의 현존을 공경하며 신자들이 도움과 위로를 받는 곳이므로, 아름다워야 하고 기도와 장엄한 성사에 알맞아야 한다.³¹⁾ 이 ‘하느님의 집’을 이루는 표징들이 지닌 진실과 조화는 그곳에 계시면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³²⁾

성당은 더없이 위대한 성찬례의 기도를 연장하고 내면화하는 묵상과 침묵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가시적인 성당은 하느님 아버지의 집을 상징한다. 하느님 백성은 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묵시 21,4). 그러므로 성당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지 환영하는, 하느님의 모든 자녀의 집이기도 하다.

5. 전례 전통들과 교회의 보편성

사도들의 신앙에 충실한 하느님의 교회들이 어디에서나 기념하는 것은 동일한 파스카의 신비이다. 그러나 전례에서 기념하는 신비는 하나이지만, 전례를 거행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헤아릴 수 없이 풍부하므로, 어떠한 전례 전통도 그것을 완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예법들이 발생하고 발달한 역사는 전례의 놀라운 상호 보완성을 보여 준다. 여러 교회가 신앙과 신앙의 성사에 일치하여 이 전례의 전통들을 실천했을 때, 그 교회들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였으며, 거룩한 전승과 온 교회의 공통 사명에 충실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례의 다양한 전통들은 바로 교회의 사명 자체에서 생겨났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같은 권역에 속하는 교회들은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독특한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빛이시며 구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한 교회의 전례 생활을 통하여, 그 교회가 파견되어 뿌리를 내린 그곳의 민족과 문화에 자신을 드러내신다. 교회는 보편되다. 교회는 모든 문화의 풍요로운 다양성을 정화하여 자신의 단일성 안에 수용한다.

전례의 거행은 각 민족의 특성과 문화에 부합해야 한다.³³⁾ 그리스도의 신비는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로마 16,26), 모든 문화 안에서 선포되고 거행

31) 전례 헌장, 122-127 항 참조.

32) 전례 헌장, 7항 참조.

33) 전례 헌장, 37-40항 참조.

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로 문화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고 완성된다.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고유의 인간 문화와 더불어 또 그 문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수많은 자녀들은 성부께 나아가,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드린다.